

# 학대받는 동물을 위한 논쟁적 동물윤리론

## 동물도 우리처럼

마크 롤랜즈 지음, 윤영삼 옮김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차이도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한 차이는 ‘어떤 종으로 태어나느냐’하는 것처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능처럼 기준 자체가 매우 임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동물윤리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구적 관점에서 동물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달팽이출판 제공>

우리는 동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도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물 또한 삶, 행복과 같은 본질적 가치를 누리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동물의 권리문제와 연관된 도덕철학을 주장한다. 마이애미대학교 철학과 마크 롤랜즈 교수가 펴낸 ‘동물도 우리처럼’은 동물윤리론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은 지난 2004년 발행돼 절판된 ‘동물의 역습’을 새롭게 개정했다. 저자가 책에서 차용한 도덕논증은 미국 철학자 존 롤즈의 ‘정의론’에서 주장한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여성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여성이 될 확률이 5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차별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같은 논증으로 볼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가 될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지 모른다면, 당신은 경제적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을 것과 같은 논리다. 저자는 도구적 관점에서 동물을 바라

보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의 시선은 도구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 책의 편지를 맡았던 폴린 맥킨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노예제도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예의 가치는 노예 개인으로서의 행복, 자유, 삶의 관점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노예의 가치는 결정된다. 노

예는 자동차와 다름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노예제는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를 도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취급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한다.”

저자는 동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주장한다. 그렇다고 인간과 똑같이 대하라는 뜻은 아니다. 생물학적 종이 우리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어느 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도덕적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한 저자는 동물이 자신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동물들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그렇다고 동물의 도덕적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결론을 독자들에게 믿으라 강요하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반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체계적으로 논리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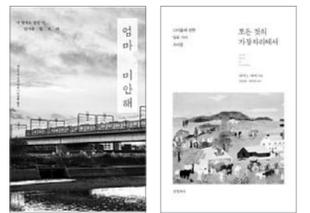
번역자 윤영삼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제도들도 발전했다고 본다. 그러나 동물권, 동물복지와 관련한 깨달음은 더 높고 견고한 논리적 틀과 마주한다.

“어떤 동물이 동물원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동물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축사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동물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은 누가 보아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달팽이출판·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엄마 미안해**=갑작스런 어머니의 치매 통보. 그런 어머니를 모셔야만 하는 아들. 그 당황, 좌절, 피로, 놀람, 혼란의 연속에 대한 인생의 현상 기록을 담았다. ‘엄마, 미안해’의 발간으로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마쓰우라 신야는 50대 독신남으로 승승장구하던 기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치매와 맞닥뜨리며 순간순간의 경험담을 차분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냉정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KMAC·1만4000원>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저자 파커 파머는 노화라는 중력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나이들에 협력’할 때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들려준다. 스물네 편의 에세이와 여러 편의 시로 이루어진 이 책은 나이들에 대한 안내서가 아니다. 대신 저자의 경험을 비추는 프리즘을 일곱 번 바꿔가면서 독자들도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북돋는다.

<글항아리·1만5000원>

▲**그림책이 있어서 다행이야**=엄마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으며 따뜻한 위로로 전한 SNS ‘엄마의 그림책’. 그림책을 소개하며 엄마의 시간을 공유하는 이 계정에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 하는 공감에 필요한 엄마, 엄마로서의 삶이 때로는 버거운 이들로 언제나 복작된다. 단순히 그림책을 소개하는 게 아닌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가 누군가의 위로

가 절실한 순간 그림책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시간들을 포착한 기록이다.

<수오서재·1만3800원>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이 책은 스마트폰 등 영상미디어 기기가 발달하고 청소년기 아이들의 뇌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인도하는 저자 권장희 놀이 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의 구체적, 실천적 해법과 솔루션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부모들이 스마트폰 미디어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건강하고 현명하게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마더북스·1만4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오늘 해님이 안 온다면**=사람들한테 서운함을 느껴서 사라져 버린 해님. 아이와 아빠는 우주선을 타고 해님을 찾아 떠난다. 시원시원한 붓질과 알록달록한 색감을 바탕으로 상상의 범위가 순간에 우주로 확장되는 통쾌함이 지니고 나면, 아이와 아빠의 대화가 이어진다. 대화를 통해 아이는 ‘해’가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고마운 존재였는지 깨닫게 된다.



<뜨인돌어린이·1만2000원>

▲**내 이가 최고야!**=유치가 빠지고 새 이가 나는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마냥 두렵고, 신기하고 여색하기만 하다. ‘새 이가 언제쯤 나오는지, 제대로 나오기는 하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고 걱정될 뿐이다. 이가 나기 시작한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면서 뿌듯해 하는 주인공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이나 차분하고 안정적인 색감의 그림도 이 책의 또 다른 볼거리다.



<노란돼지·1만3000원>

▲**말뚱말뚱 잠이 안와**=푸른색 그림책 시리즈 33번째.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담은 그림책이다. 밤이 깊어도 말뚱말뚱 잠이 안 오는 아기 곰이 등장한다. 가족들은 누워서 몸을 편안히 하기, 잠 자리의 포근한 감촉 느껴 보기 등 잠이 오지 않는 아기 곰을 위해 잠들 수 있는 방법들을 일러준다. 책장을 넘길수록 깊어져 가는 밤 배경, 기분 좋게 곤히 잠든 동물들의 모습, 부드러운 색감과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어우러져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고 아늑하게 만들어 준다.



<푸른숲주니어·1만1000원>

## ‘토지’ 최첨판택 흥망성쇠를 둘러싼 ‘보통 사람들’

### 나, 참 쓸모 있는 인간

김연숙 지음



이런 책이라 할 수 있다. 책은 교양 교육의 지평을 연 후마니타스칼리지 최고의 고전 강의 가 토대가 됐다. 김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 학기 50여 명의 학생들과 ‘토지’를 읽으며 삶과 세상, 타인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했다. 저자는 ‘토지’야말로 자기 삶을 궁정하기 위한 이들의 고군분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600여 명 인물들이 표출하는 가족이라는 골래, 경제적 궁핍, 사랑에 대한 집착을 새로이 해석한다. ‘나, 참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제목은 더 이상 아

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조차 결코 망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사실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일과 돈, 배우자 문제일 것이다. 저자는 이런 고민을 인간, 계급, 돈, 사랑, 욕망, 부끄러움, 이유, 국가라는 9개의 날말로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내가 만난 ‘토지’ 안의 사람들, 그들은 내게 든든한 울타리이자 시퍼렇게 날선 도끼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삶은 매순간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토지’ 바깥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친구,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 도서관에서 만난 어르신... 수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토지’를 읽으며, 제각기 새로운 기운을 전해주었습니다.”

저자는 ‘토지’가 사회의 복수극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는 사회의 이야기라 아니라 소설을 가능하게 한 배경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최첨판택과 평사리 사람들, 최첨판택이 망하고 나서 쫓기다시피 간도로 떠난 평사리 사람들, 간도에 사는 조선사람들, 간도에서 다시 평사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모든 장면들을 떠받치는 배경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원 저자인 박경리가 바라본 ‘토지’는 어떤 소설일까. 김 교수는 박경리는 한 마디로 ‘연민’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모든 이들의 인생에 명암이 있음을 이해하고, 인생의 어둠을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에겐 나뭇가지처럼 안간힘을 쓰는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시선을 보낸다. 그래서 선생은 토지의 인물들 중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선 또는 악을 단정하여 구분 짓지 않았다. 그래서 토지는 읽는 우리로 모든 인생들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공감할 수 있게 만든다.”

<천년의 상상·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 완벽방수
- 내구성보장
- 2중단열
-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 6년무상 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려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전남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목포 (061) 284-0485  
여수 (061) 683-0485  
순천 (061) 726-0482  
광양 (061) 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